

# 간편하고 빠른 투자이민! 투자이민센터가 도와드립니다

## INVESTMENT IMMIGRATION

2014년 2월 인천공항에 투자이민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투자이민에 대한 업무 지원 필요하시면 지금 투자이민센터로  
연락주세요.

- 업무** 투자이민 상담·안내, 투자자의 출입국, 체류허가 지원 등  
투자이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 등 업무지원
- 대상** 공익사업투자이민 및 부동산투자이민 비자 대상자
- 위치** 인천공항여객터미널 3층 출입국민원실 옆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 문의** 032-740-7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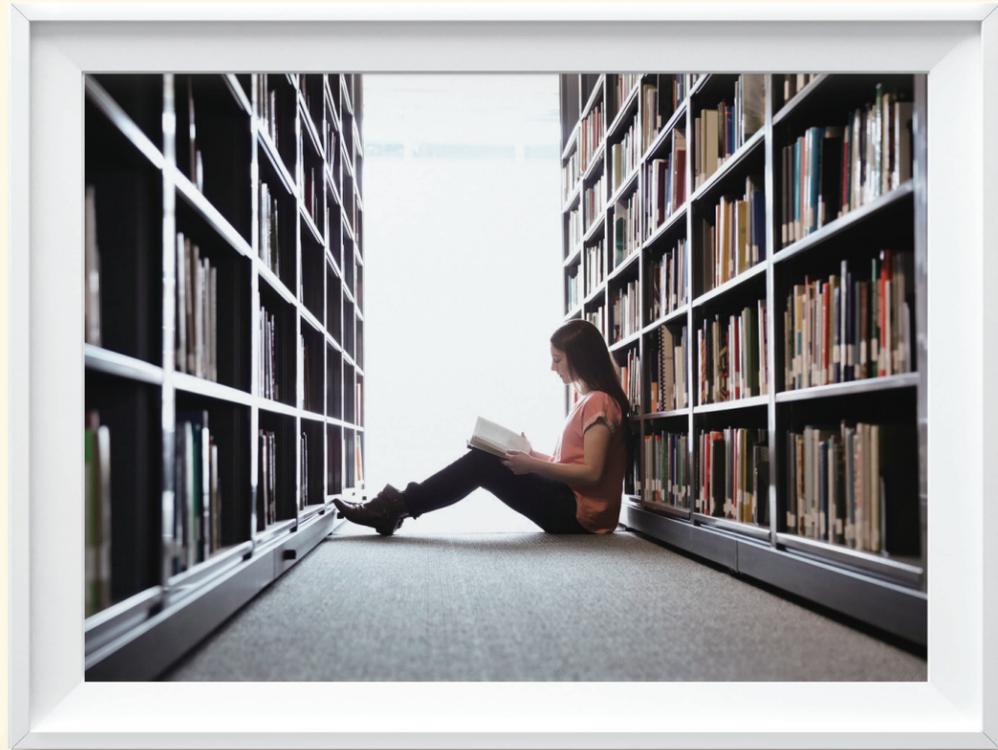
※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금(펀드)이나 공익사업에 5억 원 이상을 5년간 예치 또는 출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영주(F-5) 자격을 주는 제도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共 공존 ZONE



## SPRING THEME **DREAM WORKER**

세계를 무대로 도전을 거듭하며 꿈을 이루어가는 그들, 드림워커!  
꿈을 향한 시도를 게을리 하지 않고 명확한 목표로 자신의 가치를 드높이는  
재외동포가 바로 대한민국의 드림워커입니다.



## Wow! The lights from the library are still on!

5 years ago, when I first came to Korea, everything about it was unfamiliar. In particular, in Mongolia, because girls' school does not exist, a campus filled with female was unimaginable. I was so surprised at this unfamiliar sight and when I called my friends to tell them about this, they burst out laughing and teased me by saying, "You must be joking." Since then, life in Korea was filled with a series of surprises but there was an incident that touched my heart. It was seeing students who studied 24 hours in the reference room. Regardless of whether it was during a semester or vacation, this place was always crowded with students and the lights never turned off. It was only later on when I realized that this was the hard-working aspect which can be found in Koreans. Koreans wake up at dawn and work until late at night at work, too. Referring to Koreans, who work so hard like this without being lazy, as 'Tigers of Asia' is not an underestimation. The light that shines 24 hours in the library says it all. That 'No one can succeed unless they put in their everything.'

**Seoulism** Written by 철몽 | Ms. 철몽 who came to Korea in the spring of 2009 has been living in for 5 years. She has majored in Management at Ewha Womans University. As a 2nd batch reporter of 'Seoulism', a magazine for international students, she delivers stories on Korean culture seen from a foreigner's perspective.

# BLUE POST

〈共Zone〉이 보다 알차고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Send us your precious opinion so 〈共ZONE〉 can become more profitable and various.

심지훈 Sim Ji Hoon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 한국

아직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하면 편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Dream 충전소'에서 만나 본 김유리 양은 당찬 모습이 보기만 해도 뿌듯했어요. 이중언어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사랑스러운 유리 양! 그 예쁜 미소를 잃지 않고 꼭 훌륭한 가수가 되길 바랍니다!

There are still people who look at you with a stereotype when you tell them that you are a child from a multi-cultural family. However, just looking at Ms. Kim Yu Ri made me feel great as she was confident and looked so pretty when she smiled. Sweet Yu Ri who came in first in a bilingual speaking contest! Don't lose that smile of yours and I hope that you will become an excellent singer!

쑤안 린 Xuan Linh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 베트남

한국에 온지 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추운 겨울은 적응이 되지 않아요. 남편이 따뜻한 팔죽을 사주곤 했는데, 팔죽에 나쁜 기운을 쫓아주는 의미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베트남에도 짜오(chao), 쩌(tre) 등 비슷한 음식이 많아서 오랜만에 고향 음식이 생각났습니다.

Tôi đến Hàn Quốc được hơn 5 năm rồi nhưng vẫn chưa thực sự thích ứng tốt với mùa đông lạnh giá ở nơi đây. Mỗi lúc như vậy chồng tôi lại mua về súp bánh gạo ngọt ngào, tôi không biết rằng súp bánh gạo ngọt ngào mang ý nghĩa xua đuổi điều xấu. Hàn Quốc cũng có nhiều món ăn giống như ở Việt Nam như cháo, chè v.v giúp tôi nhớ mãi được những món ăn ở quê hương.

콜린 플레어 Collin Flair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 미국

〈共ZONE〉 'Go! 골목산책'에 제가 살고 있는 홍대가 소개되어 재미있게 읽었어요. 한국에 와서 홍대의 매력에 빠져 2년째 홍대에 살고 있는 데도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많네요. 이번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약다방에 가서 허브티 한 잔 마시고 따뜻한 봄을 준비할래요.

I read with interest when Hongdae, where I reside, was introduced in 'Go! Walk in the alley' in 〈共ZONE〉 which I enjoy reading. It's been my second year living in Hongdae as I fell in love with it but I realized there are still many new places which I haven't been to. I'm planning to go to 'Yakdabang' on the weekend with my friends to have a cup of herbal tea and prepare myself for the warm spring.

파크라 깔리 Pakra Kali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 파키스탄

이민자가 직접 커뮤니티를 만들고,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물방울 나눔회'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 이야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당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선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کسوسریا گنریش لبب رٹاو ھےجم بچ اوہ ناریح اڑب سی کی ےرشاعم رپ روط یتاذ نطو نیکرات رپ سارچ نشیایا ےتیدی لیکشش یتنویمک ینپا ےکی ےک یرتہب روطب۔ الم عقوم اک ےنانب ےک ےس فرط کی سی ےن سوگول ہک ےنوبہ کرہش ینوناق ےک ہرشاعم نیروک ےس ہجو سچ۔ کی شکش ےک ددم یرکم رپ روط یتاذ کی سی ےقال ےسیماگی نب ہصح اک سا ےہب سی اک مراک ےہچا سا روا ےنرک شالت وک یتنویمک یملاع سوہ اتہاچ اننب ہصح۔

봄의 노래,

상생의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 <共ZONE>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의 기운이 완연한 4월입니다. 겨우내 얼어있던 땅을 뚫고 푸릇푸릇 돌아난 생명력과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망울을 틔우는 봄꽃을 보다가 재한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떠올렸습니다. 타국 땅에서 희망의 흩씨를 심고, 정착의 싹을 틔우며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 모습이 꽃처럼 싱그럽고, 다정합니다.

현재 지구촌 176개국에는 700만 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150년 이상 되는 우리 민족의 해외이주 역사에서 재외동포들은 성공적으로 각 거주국의 모범시민으로 정착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저력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과거 재외동포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국력신장의 초석이 되었듯,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재한외국인이 한국에서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동반자로 인정 받고, 역량을 활짝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봄별 같은 따뜻함으로 서로 마주할 수 있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독자 여러분 모두 따스하고 향기로운 삶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한복근

Song of Spring,  
Dreaming of  
Coexistence in  
Korea

● Greetings to all readers! It's already April and spring is in full swing. Looking at the sprouts shooting up through the soil frozen during winter and each flower bud blooming with its unique look, I have come to think about foreigners here in Korea and Korean nationals living overseas. Their endeavor is as fresh and friendly as the blooming flower buds, as they plant the seeds of hope in a foreign land and put sincere efforts to have their seeds of settlement sprout. Currently, seven million Koreans are living in 176 different countries around the world. For more than 150 years of the history of our people's emigration, not only have our Koreans living overseas successfully settled as law-abiding citizens in their own residing country, but now they are also actively engaging in various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based on the spirit of the Korean people. In the past, the sweat and tears of Korean emigrants have served as a stepping stone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empowerment of national strength. As such,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will exert much effort to provide the foreigners in Korea with opportunities for them to be recognized as "partners to achieve the era of national happiness" and to make use of their full potential. By doing so, we will take a step further towards coexistence in Korea where everyone can embrace one another with warm heart like the spring sunshine. All in all, I hope all readers enjoy the warmest and the sweetest life. Thank you.

Commissioner,  
Korea Immigration Service Han Moo-geun



2014 SPRING No.33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COVER STORY**  
**남다른 그녀의 시크릿!**

한국에 온지 6주가 된 성향화(중국동포) 씨는 이제 한국이 낯설지 않습니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기술교육을 이수하면서 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무대에 서서 도전을 이어나갈 그녀는 당연한 '드림 워커'입니다.

**CONTENTS**

- 02 **IT'S SEOULISM** Wow! The lights from the library are still on!
- 03 **BLUE POST** 독자가 보낸 편지
- 04 **EDITOR'S MESSAGE** 봄의 노래, 상생의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SPECIAL THEME**

- 06 **THEME INTRO** 대한민국 내일의 주인공, 재외동포
- 08 **THEME SITE** 경원직업전문학교 '제빵' 기술교육 현장
- 12 **THEME GUIDE**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 정책 개정안
- 16 **THEME INTERVIEW**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객재석 원장 & 최동금 실장
- 
- 20 **한글톡톡 교실**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사회통합프로그램 현장
- 22 **미션!파서블** 누엔 티 가이 씨의 통장 개설기
- 24 **나의 취업성공기** 디지털라디오 KISS DJ 위엔 티 하미 씨
- 26 **학교 다녀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위탁형 대안학교 '서울시작다문화학교'
- 28 **K-FOOD 특공대** 봄나물비빔밥 시식 체험
- 30 **공감발전소** 부평구 다문화가정 아버지 모임 '다모아'
- 
- 34 **출입국 25시** 친정처럼 포근한 느낌,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 38 **우리동네 보물탐방** 꽃길 따라 걷는 대전여행
- 44 **다정다감 그대** 봄바람 타고 온 친절한 당신
- 46 **월드 포커스** 한발 다가선 귀환동포 정책을 기다리며
- 48 **출입국 NEWS** 1분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식
- 50 **출입국 Q&A** 방문취업비자(H-2) 관련 궁금증 해결

<共ZONE>을  
앱북에서도 만나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업데이트 됩니다.



ios용

Android용

계간 <共ZONE> 2014 봄호 통권 제33호 비매품 |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 발행일 2014년 5월 | 발행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Tel 02-2110-4019 | Fax 02-2110-0372 |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 기획 및 디자인 (주)더세븐파트너스 Tel 02-2038-7700 | 인쇄 문덕인쇄 Tel 02-462-8980

# DREAM WORKER



## 대한민국 내일의 주인공, 재외동포

세계를 무대로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는 드림워커! 대한민국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일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명확한 목표로 자신의 가치를 드높이는 재외동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共ZONE>에서는 경원직업전문학교에서 제빵 기술을 배우며 제빵 전문가가 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재외동포들과도 만나보고, 그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출입국·외국인책본부의 정책 개선안을 살펴봅니다. 또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소의 객재석 소장을 만나 이주동포들의 성공적인 한국 정착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밝은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도 열심히 달리는 대한민국의 드림워커, 재외동포를 <共ZONE>이 응원합니다.

# 부풀면서 커지는 행복 노릇노릇 잘 구워진 희망이 보이나요?



오늘의 도전 과제가 칠판에 커다란 크기로 쓰여져 있다. '불란서 빵'. 우리에게 는 크로아상이라는 단어로 더 익숙한 이 빵이 오늘 경원직업전문학교 '제빵기능사실기반' 38, 39기가 배워야 할 과제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요리조차 제대로 해본 적 없었다던 이들이 과연 '불란서 빵'을 정복할 수 있을까. 노릇노릇 빵 굽는 냄새와 함께 외국국적동포들의 희망이 함께 부풀어 올랐다.

## 재외동포들이 제빵 전문가가 된 비결?

강력분과 박력분, 이스트, 설탕, 소금을 한데 담아놓고 믹서기 타이머로 시간을 맞추자 요란하게 팬이 움직인다. 쿵쿵, 큰 소리를 내며 힘차게 반죽을 휘젓는 것이 사람보다 나아 보인다. 어느새 제빵 전문가가 다 된 박용하 씨는 반죽 덩어리를 조금 떼어 손끝으로 문질러 본다. 촉감으로 반죽의 질기뿐 아니라 온도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박용하 씨와 함께 경원직업전문학교 제빵 실습실의 고소하고 향긋한 냄새를 책임지고 있는 '제빵기능사실기반' 38, 39기는 모두 모국을 찾은 재외동포들이다. 재외동포 기술교육 이수를 위해 이곳을 찾은 것이 인연이 되어 제빵 기술교육의 동기가 되었다.

### 경원직업전문학교

제빵기능사실기 수업이 있는 날

오전 9시부터 4시간 동안

달콤한 수업이 진행된다

“지인들이 추천해 주었다며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저희 학교에 바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재외동포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껴요. 교육 뿐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쓸 정도로 직원들의 열의가 넘치죠.”

오랜 시간 동안 재외동포들을 곁에서 지켜 봐온 경원직업전문학교 박정민 선생님이 재외동포들의 근면함과 열정을 대신 말해준다. 현재 '제빵기능사실기반'은 H-2비자를 취득한 중국동포 또는 재외동포 훈련생에게 제빵기능사 이론학습 및 핵심 실기기술을 습득하도록 6주간 교육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F-4) 사증 취득반을 운영하여 H-2 사증을 보유 중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정보기기기능사, 제빵기능사, 한식·양식·중식·일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최신식 설비를 갖춘 쾌적한 교육 환경을 갖춘 경원직업전문학교는 노동부로부터 8년 연속 A등급 기관으로 평가 받을 정도로 교육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우수 직업훈련시설이다.





### 재외동포 기술교육이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6주간의 기술교육 참여를 통해 단기(C-3) 복수사증을 방문취업(H-2)사증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다.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취업활동에 필요한 기술·기능 습득과 자립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본국으로의 귀화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 “한국 온 지 6주만에 기술도 배우고, 친구도 생겼어요”

성향화(중국동포)

한국에 온 지 이제 6주인데요, 이모의 추천으로 입학하자마자 기술교육 프로그램부터 신청했어요. 단팥빵과 도넛을 직접 만들어 새로 사귄 친구들에게도 선물로 주었죠. 친구들의 맛 평가요? 사먹는 것보다 제 솜씨가 더 좋대요.



### 부지런한 손끝에서 완성된 ‘불란서 빵’

이후 과정은 부지런히 움직이는 재외동포들의 손끝에 집중되었다. 믹서기에서 반죽을 꺼낸 후 발효기에 반죽을 넣어 저온발효 시키기를 50분. 이후 발효기에서 꺼낸 반죽을 50g씩 떼어내 일명 ‘동굴리기’ 과정을 거쳤는데, 누구는 반죽 덩어리를 올려놓을 때마다 저울을 노려보면서 정확하게 무게를 측정하는가 하면 옆의 동료는 반죽이 마르지 않게 비닐로 잘 덮어주었다. 또 그 옆에서는 빵판과 필름을 닦고, 설거지, 청소를 하며 손발을 척척 맞추었다.

실온에서 15분간 다시 발효 단계를 거치자 이제는 빵의 모양을 잡아주는 ‘성형’ 과정이 이어졌다. 먼저 손으로 반죽을 비벼 길게 늘여뜨렸다가 밀대를 이용해 반죽 아래 부분으로 갈수록 너비가 넓어지게 힘을 조절하는 품이 제법 제빵사 같았다.

이후 넓은 면에서부터 좁은 면으로 반죽을 도르르 말아버리니 신기하게도 크라아상의 모양이 나왔다. 과연 누구 손 땀이 가장 좋은지 살펴보니 38기 반장을 맡고 있는 박용하 씨의 크라아상 모양이 일품이었다.

### 내일의 행복과 희망을 굽다

“제빵은 결코 어려운 분야가 아닙니다. 기초부터 시작해 실기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4가지나 되는 빵을 만들어 오면서 우리 학생들 솜씨도 초기보다 향상된 것이 눈에 보여요. 제빵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우리 동포들이 익혀서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제빵기능사실기반 38, 39기의 수업을 맡은 최용성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도 재외동포들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부지런히 반죽에 계란옷을 입히고 30분간 발효시켰다. 마지막으로 데크 오븐에 넣고 20분간 구워주기만 하면 끝! 4시간에 걸친 긴 교육기간이 훌쩍 지나간 듯한 느낌이었다. 오븐 속에서 반죽이 서서히 부풀어 오르면서 어느새 고소한 빵 냄새가 교육장을 가득 메웠다. 오븐에서 방금 구워낸 따뜻한 빵을 나눠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재외동포의 모습이 한껏 설레고, 다정해 보였다. 앞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시 마주 하게 될 그들의 모습이 오늘처럼 당당하고 친근한 모습이기를 기대한다. ☺

### “도전의 즐거움, 그리고 자신감이 생겼죠.”

박용하(중국동포)

강사님들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열성을 다해 가르쳐 주시니까 요리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반죽한 빵이 반듯한 모양을 갖춰가는 모습을 보며 한국에서는 의지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 대한민국의 드림워커! 재외동포를 품다!

## Dream Worker in Korea! Embrace overseas Korean!

독립운동을 위해, 생존을 위해 그리고 징집을 피해 떠나갔던 한국인들의 후손들이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한인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고국으로 돌아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드림워커(Dream-Worker)'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 내 비중과 역할이 갈수록 커져가는 외국국적동포들. 그들의 자립과 권익 보장을 위해 앞장 서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4월, 외국국적동포 정책 개정안을 내놓았다. 달라진 주요 정책을 살펴본다.

최근 국내 거주 체류외국인 중 재외동포가 약 38.2%에 이르고, 재외동포 중에서도 중국 동포가 51만여 명으로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장기간 거주를 희망하는 외국국적동포가 늘어나면서 그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적합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이때,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출입국, 체류지원, 국적 취득 관련 정책 총괄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4월 재외동포 정책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The overseas Korean population has reached 38.2% of the total number of foreigners currently staying in Korea, and out of the 38.2%, Korean Chinese take up the majority, standing at 85% with whopping 510,000 people. As more and more overseas Koreans express their desires to continuously stay in Korea, there has also

been an increasing demand on calls for government attention to the difficulties they face on a daily basis and more adequate policy responses. As a result, KIS, which handles all foreigners-related-matters in Korea including overseas Koreans' arrivals/departures, sojourn supports, acquisition of nationality and others, prepared revised government plans for overseas Koreans this April.

**01 모국 방문이 자유로워진다**  
지금까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동포, 미성년자, 제조업 등 근무가족에게 제한적으로 단기방문 사증(C-3, 90일)을 발급해 왔다. 때문에 대상이 되지 못한 동포들의 경우, 모국을 방

문하는 데 불편이 있었는데 그 고충이 해소되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만 60세 미만인 외국국적동포로 단기방문(C-3) 사증 발급 대상자를 확대해,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보다 많은 동포들이 자유롭게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동포는 입국 전, 사증발급신청서,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거민증, 호구부 등)와 수수료 등을 구비하여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된다. 단기방문(C-3)은 자유롭게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다.

**01 Easier to visit the motherland**  
Until recently, KIS had issued C-3 Temporary Visit visas to only overseas Koreans aged between 54 and 60, underage children and family members of foreign employees working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is meant that overseas Koreans who were not considered eligible for C-3 visas inevitably suffered many inconveniences. However, the problems are now resolved, thanks to the new policy changes. For example, starting on April 1st, 2014, KIS will expand the eligibilities for C-3 Temporary Visit visas (multiple-entry, valid for 3 years, allows a maximum of 90 days of stay) to all overseas Koreans under age 60, making more overseas Koreans freely visit their motherland. Any interested applicant can apply at a Korean diplomatic mission abroad and submit his/her application package which includes the visa application form, service fee, and official documents verifying his/her official nationality (i.e.

resident card, household register; hukou certificate). It is noted, though, that those C-3 visa holders are allowed to freely travel to Korea, they are not allowed to work during their stays.

### 외국국적동포 대상 단기방문 사증(C-3) 발급 개선

- 기존**
  - 55세 이상 60세 미만 동포, 미성년자, 제조업 등 근무 가족 단기방문 사증(C-3)
- 개선**
  -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단기방문 복수사증(C-3) 발급
  - ※ 60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는 재외동포사증(F-4) 발급

**02 방문취업 만기자의 재입국 사증발급 빨라진다**  
2007년 도입된 방문취업제도는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 지역 등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동포들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활동이 가능한 방문취업(H-2) 복수사증을 발급하는 제도이다.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 복수사증을 발급 받으면 최장 4년 10개월 동안 국내 체류가 허용된다. 이후 만기가 되면 출국했다가 한국에 재입국하여야 하는데, 이때도 사증발급이 필요하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에 한해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



(H-2-7)을 발급한다. 다만 지방 제조업, 농축어업, 육아도우미로 취업개시신고를 하고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이는 완전출국 후 2개월 경과 시, 사증을 발급한다. 한편 방문취업 사증을 신청할 때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했던 해외범죄 경력 증명서가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한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에게는 제출이 면제된다.

**02 Faster to issue a re-entry visa to H-2 status holders whose original visas already expired**

Working Visit Program, which was introduced in 2007, is a Korean government initiative which grants an H-2 multiple-entry Working Visit visa to a qualified overseas Korean aged 25 or older who lives in China or the Commonwealth Independent States (CIS). The multiple-entry visa enables the holder not only to travel and work freely in Korea but to stay in Korea for up to 4 years 10 months. Upon the expiry of the visa, the person is required to leave and re-enter Korea with a new visa. Starting on April 1st, 2014, KIS is issuing an H-2-7 Working visit visa, valid for one year, to those under age 60 who have left Korea completely for at least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ir complete departures. Nevertheless, those employed in the manufacturing, agriculture, fishery industries or as babysitters, who have declared their commencement of employment and have worked for the same employer for at least one year, may obtain a visa after 2 months from the date of their complete departures. Meanwhile, those, who have submitted criminal

background checks to a Korean diplomatic post when they first applied for their visas, are exempted from submitting the criminal record again.

**03 재외동포(F-4) 자격 취득자 가족 처우 개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999년부터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여 자유로운 출입국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왔다. 다만 중국동포의 대량 유입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단순노무 분야 종사를 제한해 왔다. 기존에는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유형에 따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동반 체류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90일) 복수사증이 발급된다. 동포가 아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도 사증 신청은 가능하며, 1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 허가 받으면 된다.

**03 Improving the treatment of family members of F-4 Overseas Koreans status holders**

Since 1999, KIS has guaranteed free movements and economic activities of Koreans of foreign nationality by granting them F-4 Overseas Koreans status. However, considering potential social consequences as a result of possible heavy influx of Korean-Chinese, KIS has restrained overseas Koreans from working in the simple labor field during their stays.

Moreover, depending on their types of stay, some people were not allowed to live with their spouses and minor children even if they were granted F-4 Overseas Koreans status. Fortunately, through this newly amended policy, spouses and minor children of all F-4 overseas Koreans will now be given F-1-9 Family Visitation visas, valid for one year, which will enable them to stay in Korea for a maximum of 90 days. Spouses and minor children who are non-Koreans are also eligible to apply for and extend the visas every year.

**04 영주(F-5) 자격 부여 제도 운영**

자격을 갖춘 외국국적동포에게는 국민에 준하는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체류자격인 영주(F-5) 자격을 부여한다. 국내 체류 및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며,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을 갖게 된다.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

**H-2 방문취업**

**방문취업 사증발급 배정인원 확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4월 1일부터 옛 소련권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고려인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 사증발급 배정 인원을 기존 6,000명에서 8,000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은 5,000명에서 6,000명으로, 카자흐스탄은 500명에서 1,000명, 키르기스스탄은 300명에서 500명, 우크라이나와 타지키스탄은 각각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다.

**Increasing the number of H-2 Working Visit visas distributed**

Starting on April 1st, KIS will increase the number of Working Visit visas distributed to Korean Russians (otherwise known as Goryeojin) in the CIS from 6000 to 8000. For example, for Uzbekistan, Kazakhstan, Kyrgyzstan, Ukraine and Tajikistan, the distributed number of visas will be increased from 5000 to 6000, 500 to 1000, 300 to 500, and 100 to 200 respectively.

**扩大访问就业签证发放分配人员**

出入境·外国人政策本部表示, 自4月1日起将放宽对旧苏联圈独立国家联合(CIS)地区高丽人同胞的访问就业签证发放政策, 签证发放分配人员将从现有的6,000名扩大至8,000名。随之, 乌兹别克斯坦的分配人员将从5,000名增加至6,000名, 哈萨克斯坦将从500名增加至1,000名, 吉尔吉斯斯坦将从300名增加至500名, 乌克兰和塔吉克斯坦将分别从100名增加至200名。

**F-4 재외동포**

**재외동포(F-4) 자격부여 규정 폐지**

개정안을 통해 자유로운 모국 방문을 허용함에 따라 과거 단기사증(C-3~C-4) 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체류기간이 30일 이내로 출입국한 사실이 10회 이상 있는 사람,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최근 3년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해 온 규정은 폐지된다.

**Eliminating regulations on the grant of F-4 Overseas Koreans status**

As the newly amended policy allows a free movement of person by giving him/her a multiple-entry visa temporary visit visa which is valid for 3 years, any former regulations which gave F-4 Overseas Korean status to those who have visited Korea at least 10 times in the past 2 years, for each visit lasting less than 30 days, on a C-3, C-4 or an H-2 visa, or to those that have stayed abroad for at least 150 days out of the past 3 years with H-2 visas, will be eliminated.

**延长滞留时时, 需义务性提交证明文件**

为了提高国内滞留外国人滞留地的正确性和实效性, 申请延长滞留时间和变更滞留资格时, 需义务性提交滞留地证明材料。提交对象包括居住(F-2)、在外同胞(F-4)、结婚移民(F-6)、访问就业(H-2)资格持有者, 同伴(F-3)和旅游签证(H-1)资格持有者除外。永驻(F-5)资格持有者申请变更滞留资格时, 必须提交证明材料。证明材料包括租赁合同书、住宿提供确认书、滞留时间结束预告通知信件和公共费用缴纳收据等。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 재입국 사증 발급 개선**

**기존**

- 만 55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1년이 경과된 사람
  -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 복수사증 발급
-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 3년간 유효한 단기일반(C-3-1) 복수사증 발급

**개선**

- 만 60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
  -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 발급

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자격 대상이 된다.

**04 Granting F-5 Permanent Resident visas**

KIS grants an F-5 Permanent Resident visa, in which its legal status is equivalent to Korean citizens, to a qualified overseas Korean. Permanent Residency guarantees economic and residential freedom, and after 3 years from the date of permanent resident status granted, one gets a right to vote in a regional-level election. In order to be considered eligible for permanent residency, either the Minister of Justice must

take into account and recognize the applicant's character, basic knowledge, need for a continuous stay, and financial ability to support himself/herself, or the applicant must satisfy all the requirements for the acquisition of nationality under the Nationality Act and for definition of overseas Koreans prescribed in Article 2 of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

**재외동포는 누구?**

재외동포란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아울러 재외동포라 정의하고 있다.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의 보호와 지원정책은 외교부가 총괄하며,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출입국, 체류지원, 국적 취득 관련 정책을 법무부가 총괄하고 있다.



객재석 원장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적동포과장을 역임했으며, (사)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을 설립하여 이주동포들의 사회통합과 역량강화,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등 이주·동포 관련 정책 및 행정 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 재외동포가 건강해야 국가의 미래도 밝습니다

(사)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은 재외동포 및 이주민을 대상으로 법무부가 추진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각종 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그들이 한국 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객재석 원장은 개방형직위였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적동포과장을 역임한 경험을 살려 이주·동포와 관련한 정책 및 행정 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고, 중국동포 출신인 최동금 행정실장은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려운 곳을 꼭 짚어 긁어주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 재외동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이유

통일 한국, 글로벌 코리아를 위해서는 재외동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700만 재외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객재석** | 1992년 미국 LA 폭동 당시 재미 한인동포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후 한인들의 각성이 있었는데 주류사회 편입을 위해 정치 참여가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본해 일색이었던 지도에 동해를 병기하도록 법안이 개정되고, 한국에 유리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한인사회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중국 연길에 갔었는데 전에는 없었던 조선족기업협회라는 단체가 생겼습니다. 중국동포들의 경제활동이 그만큼 활발하고, 규모도 커졌다는 의미인데 그만큼 현지에서 동포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국가 미래전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과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최동금** | 저는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중국에서 살 때는 동포였습니다. 대부분의 중국동포가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동포는 잘 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포도 많습니다. 중국동포, 다시 말해 조선족들은 돈을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활동을 위해 모국을 찾는 재외동포도 늘고 있다. 통일 한국, 글로벌 코리아를 위해서는 재외동포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의 감정에는 양면성이 있다. 해결책은 없을까?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성이 필요하다고 (사)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객재석 원장과 최동금 행정실장이 입을 모은다.

별면 자녀교육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나는 어렵게 살았어도 자손들은 많이 배워서 잘 살라는 겁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공 확률도 높아지고, 동포사회의 힘도 커지겠지요. 그래서 저는 취업을 위해 모국을 찾은 동포들을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동포들이 벌어오는 돈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그런데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의 감정에는 양면성이 있다. 선진국 출신 재외동포와 낙후된 나라에서 모국을 찾아 3D 업종에 종사하는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이다.

**최동금** | 중국동포가 한국사회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잘 몰라요. 저도 6년 살았지만 아직도 잘 모르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중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이 한국에서는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면 대부분은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동료들과 대화를 통해 '한국식을 알게 되고, 분위기를 봐가면서 눈치로 터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적응하고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한국의 문화에 맞지 않는다고 흉을 보거나 한 사람의 사례를 전체가 그렇다는 식으로 몰고 나가지 않기 바랍니다.

**객재석** | 큰 틀에서 보자면 재외동포들은 민족성이 비슷하지만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와 생활, 사고방식이 다른 곳에서 살아온 사람이 한국에 왔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편견을 갖기보다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배려하고, 강요하기보다는 한국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교육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해하면 답이 나옵니다.



최동금 행정실장은

중국 길림성이 고향인 그녀는 상하이에서 10년간 투자자문사를 운영하다가 2008년 입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후 연구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며 재외동포들의 '가려운 곳을 꼭 짚어 긁어주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사)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연혁**

- 2009년 9월 이주·동포정책연구소 개소
- 2010년 1월 사단법인 허가(법무부), 초대소장 객재석 박사(정치학) 취임
- 2010년 3월 이민행정과정 개설(1년 과정)-경기대 사회교육원
- 2010년 5월 이주동포전문저널 '미드리' 창간호 발간
- 2011년 3월 출입국업무 민원신청대행기관등록(체류지원센터)
- 2011년 5월 부설 동포체류지원센터 개소
- 2012년 1월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2012년 2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지정
- 2013년 5월 (사)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 2013년 7월 부설 이주민지역복지학교 개교
- 2013년 9월 이주동포사회복지협의회 창립

**재외동포가 건강해야 국가의 미래도 밝다**

긍정적인 것은 정·관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꾸준한 논의와 함께 재외 동포 정책이 지속적으로 진일보하였고, 동포들도 지역사회와의 융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동금** | 이제는 중국동포들도 모국 발전의 주체가 되어 국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아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전문기술을 연마하여 직업적 한계에서 벗어나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연구원에서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출입국이민행정과정, 중국무역실무교육, 의료관광 가이드, 여행사 오퍼레이터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중국동포를 포함한 다문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객재석** | 우리나라가 성숙한 사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름에 대하여 차별과 편견이 없어야 하고, 균등하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아량이 보편화되어야 합니다.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각 개인이나 이익집단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으나 그것을 아우르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진정으로 성숙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은 모국을 찾는 재외동포를 경쟁자로 인식하기보다는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정부 역시 우선적 과제로 재외동포들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여 모국에서 꿈을 이루는 동포가 늘어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외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민족 정체성은 대한민국의 세계화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재외동포가 건강해야 국가의 미래도 밝습니다. ☺

연구원 부설 이주민복지교육센터는 중국동포를 포함한 다문화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의 복지수혜 계층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복지 참여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내적 변화의 요람이 되고 있다

**우위에 있는 사람들의 자성이 필요하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갈등과 오해가 생긴다. 소통의 우선은 경청이다. 한국에 와서 일하는 동포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최동금** | 중국동포들은 말이 통하니까 한국생활이 수월할 것 같지만 조연해 주는 사람이 없는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했어도 한국에 와서는 3D 업종을 전전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 일자리를 얻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또한 다문화에 대한 지원은 결혼이민자 가정으로 쏠려있어 동포들은 그야말로 혼자 힘으로 버티고 일어서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중국동포들이 다른 일,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객재석** | 중국동포들은 돈을 벌겠다는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굶은일 힘든 일을 가리지 않고, 보기에 낯할 정도로 열심히 일합니다. 공사판에서 번 돈으로 자녀를 미국·일본으로 유학 보낸 분이 있을 정도로 자녀교육에 투자합니다. 늘 돈이 시급한 것이지요. 그런데 돈 몇 만원에 직장을 옮기는 동포를 보고 그 회사 사장이 '중국동포들은 돈만 밝힌다'고 욕하더군요. 자기 할 도리는 다 했는데 배신당한 것처럼 말하는 그 사장에게 과연 정당한 대가를 주고 일을 시켰는지 묻고 싶더군요. 혹시 동포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은 없었을까요? 약자의 위치에 있는 동포들의 행동에 대해서 알기알부하기 이전에 우위에 있는 사람들의 자성이 필요합니다.



**이주민·동포·지역주민을 이어주는 (사)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민자가 한국말과 한국문화를 빨리 익혀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스스로 돕기 평생교육센터 개소**  
이주민과 동포들의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연구원 부설 '중국동포 스스로 돕기 평생교육센터'를 개소, 운영하고 있다.



**●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가 양성**  
무역관리사, 출입국이민행정실무전문가, 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양성과정과 ITQ 엑셀 & 파워포인트 자격증반을 개설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지역사회와의 교류확대 추진**  
동포-지역주민 간 상호이해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향후 동포 및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이주민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은 특별한 서류가 없어도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해요.”  
정답을 말하는 수강생들의 얼굴이 사뭇 진지하다. 문제풀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의 마지막 과정인 5단계를 이수하고 있는 수강생들이다. 서툰 한국어로 더듬더듬 정답을 맞춰가다가 먼저 정답을 말한 동료에게 격려 박수를 보낸다.

**교실에서 여우는 배움의 열정**

회원종합사회복지관은 2005년이 민자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송실대 학교에 거점기관을 두고 일반 운영기관으로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빨리 익혀 국민과의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며,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과정과 외국어과정으로 구분되는 언어과정, 다문화사회 이해과정 등으로 구성되며 0단계에서 5단계까지의 과정이 개설되어있다. 현재 회원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단계와 5단계를 수강할 수 있다.  
오전 9시 30분, 아침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업을 듣기 위해 모여든 수강생들이 수업 시작 전부터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복습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인 만큼 다들 50시간의 수업 이후 있게 될 단계평가를 준비하는 데 여념이 없다. 벌써 8번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는 김순희 선생님은 마지막 단계에 있는 수강생들의 어려움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  
“수강생들이 한국어말은 유창하지만 문화나 생활에 관련된 부분에 취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는 한국의 문화에 익숙해지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죠.”  
뉴질랜드에서 온 매튜 씨는 고국과는 다른 문화에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다고.  
“한국에는 2007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아직도 한국의 문화는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문화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면서 배우는 보람을 느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F4 비자를 취득하고 싶어요.”

**내일을 준비하는 희망찬 오늘**

귀화의 종류에 대하여 복습하고 난 다음에는 한국의 명절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 선생님이 먼저 교재를 읽으면 수강생들이 서툰 한국어로 더듬더듬 구절을 읽어내려간다. 제법 어려운 개념에서는 선생님이 이해가 쉽도록 단어를 풀이해준다. 단어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어려운 문제에 막혀 답을 찾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옆에서 답에 대한 힌트를 알려 주기도 한다. 답을 맞추며 잠깐 교실이 소란스러워졌다. 문제에 대한 정답이 같았기 때문.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정답을 유추해 보기도 하고 교재를 들추며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답을 찾아간다. 커다란 도화지에 서툰 글씨로 오늘 배운 단어들을 쓰며 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 한국의 명절을 즐기고 싶다고 웃는 그들의 모습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새로운 희망이 엿보인다. ☺



**알쏭달쏭한 한국 문화  
재미있게 배워요!**

사각사각 연필소리만 가득한 교실. 꽃샘추위로 추운 바람이 불어오는 이른 봄이지만, 회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강 중인 수강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의로 교실 안은 벌써 봄이 찾아온 듯이 화사하다. 제법 어려운 문제를 풀고난 후 함께 답을 맞추며 쏟아지는 웃음꽃으로 성큼 봄이 다가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날 수업의 한국 문화 배우기  
한국의 명절편(National Holiday in Korea)**

**떡국 [Tteokguk]**  
↳ 가래떡을 얇게 썰어 맑은 국에 넣고 끓인 음식  
Rice-cake soup (prepared with slices of rice cake, beef, eggs, etc.)

**강강술래 [Ganggangsullae]**  
↳ 부녀자들이 보름달 밑에서 손에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추는 우리 고유의 민속춤  
Traditional Korean circle dance play by women under the bright full moon

# 내 이름이 적힌 통장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생활비 관리를 위해 통장이 꼭 필요하지만, 한국말에 서툰 누엔 티 가이(베트남, 45) 씨는 은행에 가기가 쉽지 않다.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많고, 말이 빠른 은행원들을 마주하면 긴장도 되고, 자꾸 주눅이 들기가 일쑤였다. 오늘, 다시 용기를 내 미루던 통장 개설에 도전하게 된 그녀. 과연 무사히 통장을 만들 수 있을까?



## 참 잘했어요 ★★★★★

**누엔 티 가이 씨의 도전**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는데, 친절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저에게 맞는 저축 방법 등도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금방 통장을 만들 수 있었어요. 이렇게 금방 만들 수 있는데 지레 겁을 먹고 포기했네요. 귀화 시험을 앞두고 한국말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통장을 만들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니 한국말도 금세 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은행 업무도 제가 직접 볼래요.”

### 혼자 은행에 가려니 겁이 나요

한국에 온지 4년차, 누엔 티 가이 씨의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처음으로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는 날이기 때문. 생활비는 늘 남편과 함께 계획을 세운 후에 현금으로 받아서 사용했지만, 올해 5살이 된 아들이 점점 크면서 학비나 생활비 등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을 대비하여 통장을 개설할 계획을 세웠다.

처음 남편을 따라 가 보았던 은행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로 기가 죽어 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 친정에 돈을 부칠 때에도 남편이나 친구들에게 부탁하곤 했다. 때문에 오늘 혼자 은행에 가는 게 괜스레 무섭기도 하지만, 제법 익숙해진 한국어에 용기를 낸 누엔 티 가이 씨는 은행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간다.

### 빠뜨리고 온 것은 없겠조?

은행 안에 들어서서 번호표를 뽑고 연신 가방을 뒤적이며 준비물을 확인하는 누엔 티 가이 씨. 외국인등록증과 여권만 있으면 쉽게 통장개설이 가능하지만, 혹시나 무엇을 빠뜨렸을까 걱정이 된다. 드디어 누엔 티 가이 씨의 차례. 자리에 앉아 방문 목적을 설명하니 창구 직원이 누엔 티 가이 씨의 통장계좌 개설을 돕는다. 빠진 것은 없는지, 알아들 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정리한 다음 필요한 서류와 개설 이유 등을 간단하게 묻는다.

긴장했던 얼굴이 풀어지며 이내 창구 직원과의 수다에 빠진 누엔 티 가이 씨는 과연 통장 개설에 성공할 수 있을까? 🍀

##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적립식예금



● **적립식예금이란?** 일반 예금통장 말고도 돈을 모으기 위하여 적립식예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11개 은행은 자체적으로 결혼이주 여성들을 위해 금리와 납입한도가 높은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가입대상과 금리, 월 납입액 등은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해당 은행의 영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증빙서류와 상품소개 등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 **적립식예금 상품** KB국민행복적금(KB국민은행), 신한새희망적금(신한은행), 우리희망드림적금(우리은행), 하나희망기움적금(하나은행), 하나내일기움적금(하나은행), 외환1004나눔적금(외환은행), 기업신서민심김적금(기업은행), 농협행복기움적금(농협은행) 등



## 통통 튀는 목소리와 철저한 준비로 밝은 희망 전해요



‘On Air’ 간판에 불이 들어오자 맑은 목소리가 스튜디오 안을 울린다. 한국의 음악과 문화가 좋아 무작정 한국으로 와 다양한 도전 끝에 라디오 DJ까지 하게 되었다는 하미(베트남, 24) 씨가 바로 목소리의 주인공. 한국의 방송 스타일을 배우며 많은 것들을 체험하는 지금이 행복하다며 웃는 모습이 목소리와 닮았다.

### 장점이요? 저의 당차고 다부진 성격이죠!

일주일에 세 번, 한 시간 반의 녹화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방송 준비부터 녹화까지 척척 해내는 손끝이 아무지다. 멘트부터 선곡, 편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일임에도 하미 씨의 집중력과 철저한 준비성은 이미 방송국 내에서도 소문이 나있다. 하미 씨는 청취자들과 호흡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에 입학한 후에도 전액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며 수업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당차고 성실한 하미 씨의 성격 덕분이다.  
“베트남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다가 학교 방송국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한 관심이 생겼지요. 그러다가 평소에 관심이 있던 드라마와 K-pop 등으로 유명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 남과 다른 독특함을 강점으로

2013년 학교에서 베트남 이주여성과 관련된 영화를 찍으려고 하다가 알게 된 곳이 바로 이곳, 디지털라디오 방송국 KISS였다. 고향인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결혼이주여성들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덜컥 DJ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하미 씨도 힘든 점이 많았다.  
“베트남과 한국의 방송 스타일이 많이 달라서 고생했어요. 베트남 방송에서는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정보만 전달하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저의 이야기도 하면서 방송을 듣는 사람들과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하미 씨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어려운 점이 있을 때에는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바른 해결책이라는 것을 몸소 배웠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몸으로 부딪치는 성격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모르는 것이 있다고 가만히 있다가는 그대로 정체하고 말기 때문에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다. 그 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DJ가 될 수 있었다. 특히 방송 게시판이나 SNS 등에서 청취자들이 서로의 자기 사진을 올리고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밝고 건강한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믿으세요. 남들과는 다른 특이한 나만의 장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

### 하미 씨의 취업성공 노하우 살펴보기

- 한국 문화 점수도 백점! 진짜 ‘한국인’이 되세요  
언어를 100%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독특한 한국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예요.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바로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고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도 한국의 문화를 익히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 나의 이야기를 하세요  
한국에서 일을 하며 느낀 것은 한국인들이 남의 일에도 친절하고, 공감을 잘 한다는 것이예요. 때문에 딱딱하게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부드럽게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서툰데 부족하다더라도 그 경험은 ‘나’만의 장점이 되기 때문이죠.

● 학교 다녀왔습니다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다문화학교



## 서울시작다문화학교 커리큘럼

예감 좋은 시작  
반갑다 코리아!

제 몸만한 가방을 메고 매일 아침 집을 나서는 아이의 뒷모습에 엄마는 생각이 많아진다. 수업이 어렵지는 않은지, 친구들과는 잘 어울리는지. 모든 것이 낯선 중도입국 자녀에게 '학교'는 어쩌면 아이에게 배움의 터전이 아닌 긴장되는 곳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1호 다문화 예비학교, '서울시작다문화학교' 학생들의 한국 적응기는 '문제없음'이다.

### 한국 학생 생활의 '시작'은 이곳에서!

여느 학교처럼 수업이 끝남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학교를 나서는 아이들의 소리가 왓지결하다. 수업은 끝났지만, 중도입국 자녀들에게 하갓길은 한국사회를 향한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하다. 이 시작을 향해 바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바로 서울시작다문화학교.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가 운영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지정한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1호로 2013년부터는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중점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중도입국 자녀가 모국에서 받은 수업 커리큘럼이 국가별로 달라 통합이 어렵고, 한국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단점을 없애기 위한 중학교 과정의 통합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며 교육내용은 한국어와 한국사회적 중심이다.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하는 대안학교이므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원적 학교로 복교하여 정규교육을 받고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에 초기 정착지원을 넘어 한국사회에서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 성숙한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다문화 가정 2세대들이 미래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될 것임을 생각해 볼 때 '교육'은 그 첫머리에 두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이미 모국에서의 생활 및 교육을 습득한 후이므로 더욱 적응이 어렵다. 이러한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한 대안이 '서울시작다문화학교'인 것이다.

글 박지수 사진 서현우



### "이제 한국어 자신 있어요."

시작다문화학교에 온지 이제 한 달 되었어요. 이전 한국학교에서는 수업이나 학교 생활이 힘들었는데 여기에는 저와 같은 친구들이 많아서 서로 많이 도와줘요. 선생님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요. 수학, 미술, 국어 등 여러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한국어 수업이에요. 요즘은 한국의 신화를 읽으면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신문군 (중국, 16)



### 입학 절차



문의 1644-1711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1동 171번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신관 3층)  
정보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www.mcedu.kr)

### 입학 시 필요서류

- 외국학교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 외국 가족관계 입증서류(출생증명서 등)
- 출입국사실증명서(시·군·구 민원실,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24)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시·군·구 민원실,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24, 주민센터 fax 민원)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배정학교에 따른 요구 서류

### 재능개발과 정규교육을 아우르는 커리큘럼

서울시작다문화학교는 한국어 중심의 보통교과교육을 실시하여 중도입국 자녀가 안정적으로 교육제도권(일반 학교) 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결 관문이다.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한국어 교육지원, 통합사례 관리지원, 학력취득지원, 진로 및 취업지원, 특기적성 교육지원, 사회통합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 교육은 일반 교육과 진학 및 취업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구분하여 맞춤 학습이 가능하다. 기본소양 교육뿐만 아니라 국어·영어·수학 등의 정규 교육은 이후 일반 학교진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마련하였다. 따로 마련된 검정고시반은 중도입국 자녀들이 한국에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댄스, 미술, 태권도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특기적성 교육까지, 사회로 발을 내딛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교육 선상에 두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다문화캠프는 더욱 깊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학생 및 학부모가 언제든지 고충을 털어놓고 선생님과 함께 방법을 찾아나가는 1:1 개별상담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준다. 아이들의 꿈이 커가는 이곳에서의 시작에 좋은 예감이 든다. ☺





## 햇빛 듬뿍 봄나물로 기운 UP! 봄나물 비빔밥 맛보러 가요~

비빔밥은 불고기, 김치와 더불어 전 세계에 알려진 대표 한식 메뉴이다. 때문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라면 한번쯤 도전해 볼만한 음식이기도. 특히 봄철에 한국을 찾았다면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비빔밥이 있다. 겨우내 얼어있던 땅을 뚫고 푸릇푸릇 돌아온 생명력과 싱그러운 봄나물만의 향기는 잃어버린 입맛을 돋우는 데에 그만인 봄나물 비빔밥! 그릇에 담긴 다양한 나물의 색에 한 번 반하고, 입 안 가득 퍼지는 다양한 맛에 두 번 반한다는 그 맛은 어떨까?

한국에 와서 처음 나물을 보았다는 이들은 서울글로벌센터의 직원 이부현(필리핀, 35) 씨와 황정남(중국, 29) 씨, 그리고 자원봉사자 도니요르(우즈베키스탄, 23) 씨다.

세 사람 모두 채소가 귀한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채소는 항상 특별한 날에만 먹는 음식이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도니요르 씨에게 채소는 기름에 튀기거나 구워서 다른 음식과 곁들여먹기 때문에 '나물'은 한국에서 처음 본 특별한 음식이었다. 봄이 되면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먹긴 하지만, 채소에도 비타민이 들어있는 지는 몰랐다고.

필리핀에서 온 이부현 씨도 비슷하다. 필리핀에는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 채소가 잘 자라지 않는다. 특별한 날에만 먹는 '참수'이라는 음식이 있지만, 고기와 함께 곁죽하게 끓이기 때문에 채소 본연의 맛을 느끼기 어렵다.

황정남 씨의 고향 중국에서는 '한 해의 모든 기운은 봄에 달려있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봄철 식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비타민과 영양이 듬뿍 들어있는 봄나물 비빔밥으로 이들은 한 해의 기운을 받았을까? ☺



황정남 (29세)

별점 ★★★★★

제 입맛에는 한국의 음식이 달콤하거나 맵게 느껴졌는데, 봄나물 비빔밥은 쓴 맛이 느껴졌어요. 봄나물에서 나는 맛인 것 같은데 제게는 생소한 맛이 당황했어요. 거부감이 들 정도는 아니지만,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 더 쓰게 느껴진 것 같아요.



이부현 (35세)

별점 ★★★★★

처음에 봤을 때는 양이 많지 않은 것 같았는데, 비벼서 먹다 보니 양이 많더라고요. 고기가 들어가 있고 적채, 시금치, 당근 등 다양한 채소가 들어가 있어서 평소엔 채소를 잘 먹지 않는데도 맛있게 먹었어요. 먹기 전, 재료의 다양한 색을 보는 맛까지 더했네요.



도니요르 (23세)

별점 ★★★★★

씹을 때마다 아삭아삭한 소리가 나는 것이 신기했어요. 신선하고 좋은 채소로 씹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쌀이 딱딱하지 않고 채소가 얇게 썰어져 있어 비벼먹었을 때 잘 넘어가서 좋았어요.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신기한 채소도 맛볼 수 있어서 좋아요.



### 먹는 즐거움이 가득한, 비빔밥

밥 위에 갖은 나물과 고기 등을 얹어 양념에 비벼 먹는 음식으로 '섞어 비빈 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비빔밥은 계절에 나온 여러 가지 채소들로 나물을 만들어 밥과 비벼먹기 때문에 먹기에 간단하면서도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다. 재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시기와 지역에 따라서 종류도 다양하다. 특히 봄철에 나는 햇나물은 비타민 C와 단백질, 칼슘, 철분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여 입맛을 돋우고 생리적 기능 조절에 탁월하다.



## 다모아의 '불타는 금요일' 아빠들의 해피타임이 시작된다

매주 금요일이 되면 가슴이 더 뜨거워지는 이들이 있다. 소통의 방법을 고민하고, 더 나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은 아버지들도 있다. 바로 인천 다문화가정 아버지들의 모임, '다모아'이다. 화목한 가정을 위해 발벗고 나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에 그들의 미소는 밝다.

### 가족을 지키는 슈퍼맨이 한 자리에

“다음에는 아내 고향의 언어를 배워 보는 것은 어떨까요?”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부모교육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 조용하던 '시스터푸드'가 시끌시끌해 진다. 오늘은 다문화가족 아버지모임인 '다모아'의 정기모임이 있는 날. 아내가 정성 들여 만들어 준 음식들을 손에 든 '다모아'의 회원들이 속속 아시아 이주여성 다문화공동체 마켓 시스터푸드로 모여든다.

한 달에 한 번, 금요일마다 모여 만남을 가져온 지도 벌써 3년째다. 2011년 인천여성전화 가족캠프프로그램 캠프 중 아버지들끼리

모임을 가지는 시간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의기투합하여 다문화가정 아버지 모임을 결성했다.

### 아버지는 무뎡뎡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 모여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다 보니 공감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많아졌다. 작년에는 인천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로 이루어진 '인천교육연구소'를 초청하여 매주 금요일 저녁 '아버지 인문학 카페'라는 이름의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해 쉬기 바빴던 아버지들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방법을 알게 되니 자녀들과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는 등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다모아'의 회장 구자응 씨에게는 이 모임이 더욱 소중한데, 같은 것을 고민하는 이들이 모여 몰랐던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소통의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 가족 간의 대화도 풍부해 졌다.

"다문화가정이다 보니 아내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회원들과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주기적으로 모여 인문학에 대한 여러 강의를 듣다 보니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 함께 모여 같은 고민 나눕니다

현재 '다모아' 모임의 아버지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이다. 때문에 모임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은 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한국말과 한국 문화가 서투른 아내를 적극적으로 도와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모임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 또한 생각 중이다. 총무인 강호규 씨는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들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이 막중하다.

"아버지들이 중심이 된 다문화모임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않지만 좁게는 우리 가정에, 넓게는 인천의 다문화가정에 유익한 모임이 될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로 모여 각 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고충을 나누며 어려움을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 아버지들의 '불타는 금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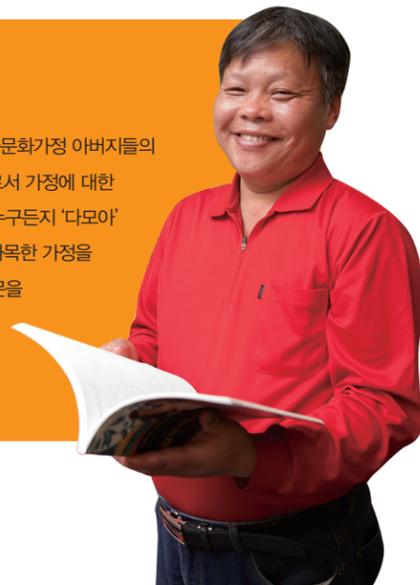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만으로도 식탁이 가득 찼다. 아내가 손수 만들어 준 음식을 설명하고 다른 이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맛보며 그간 쌓였던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들의 얼굴에는 저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다.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으며 현재까지 이어져 온 '다모아'처럼 아버지들 또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이 크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도 돕고, 자신들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다른 어려운 이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

'다모아'에서는 올해 아내 나라의 언어나 자녀들과 놀아주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더 많은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들이 모임에 참여하게 되어 몰랐던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함께 많은 것들을 배우며 스스로의 힘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아버지들의 '불타는 금요일'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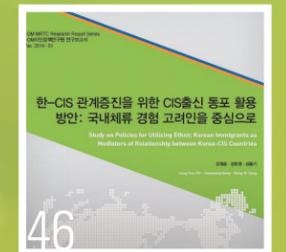
#### '다모아'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인천여성연계전화 캠프에서 시작한 다문화가정 아버지들의 모임이지만,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로서 가정에 대한 고민이나 고충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다모아'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시스터푸드 문의 두드려 주세요. 가족과의 대화가 더욱 풍부해 질 거예요!  
구자응 씨(54, '다모아' 모임 회장)



# Immigration Now

2014 SPRING



출입국 25시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우리동네 보물탐방 | 꽃길 따라 걷는 대전여행

다정다감 그대 | 봄바람 타고 온 친절한 당신

월드 포커스 | 귀환동포 정책을 기다리며

출입국 NEWS | 1분기 소식

출입국 Q&A | 방문취업비자(H-2) 관련 문의

# 친정처럼 포근한 느낌!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직원이 행복해야 민원인이 행복하다는 소신 때문이다. 내부로부터의 긍정적 변화는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해 법무부 조직문화개선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일일 특파원**  
이홍매 씨(중국동포)

“〈共ZONE〉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입니다.”

AM 09:40

### 인사 먼저 드립니다~!

저는 중국동포이고요, 1996년에 한국에 왔으니 벌써 18년이란 세월이 지나갔네요. 그동안 한국 국적도 취득하고, 두 아들을 키우는 '한국 아줌마'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전시청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다문화가정 민원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자네트워크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입국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하루라도 빨리 한국 사회와 가정에 정착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행하는 소식지 〈共ZONE〉의 일일특파원이 되어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 사업은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AM 10:30

**친절하면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국적·사증팀'**

체류팀 맞은편 홀은 국적·사증팀의 업무공간입니다. 국적·사증팀에서는 외국인의 귀화나 동포의 국적회복 등 한국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신청접수 및 허가심사, 국적선택, 이탈 등 국적업무를 처리하고, 외국인이 한국으로 귀화하기 위해 봐야 하는 필기시험이 지난 2월부터 법무부에서 지방사무소로 이관됨에 따라 직접 필기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적·사증팀에서는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외국어 강사 등이 사증발급신청서를 신청하면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 체류팀이나 국적·사증팀에서 각종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날은 태국에서 오신 박지영 선생님이 봉사자로 나와 민원인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친절한 국적·사증팀 직원들과 함께 선배들이 도와주니 대전출입국사무소를 찾은 새내기 결혼이민자들이 불편없이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함으로써 돌아가는 발길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AM 10:00

**따뜻한 미소로 업무를 시작하는 '체류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는 중구 목중로 26번길 7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등록외국인은 약 2만 9,000명입니다. 대전이 교육도시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외국인 유학생이 약 9,000명에 이르러 전국 2위라고 합니다. 청사 1층에 들어서면 원편으로는 체류팀이 있습니다. 체류팀은 한국에 입국하여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자격부여, 근무처 변경 등의 업무와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및 각종 기록조회 등을 할 수 있는 부서인데 결혼이민자나 이주근로자, 유학생이라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강진호 체류팀장님은 "문화와 언어가 달라 가끔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함으로써 돌아가는 발길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흐뭇하고 든든하네요.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와 재한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AM 11:30

**이민자의 친정 같은 '이민통합지원센터'**

청사 3층에는 이민통합지원센터와 '결혼이민자 사랑방'이 있습니다. 이민통합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와 재한외국인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부서인데, 사회통합프로그램과 해피 스타트, 결혼이민자네트워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5월에는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또한 한국 물정에 익숙하지 않은 동포들을 위한 기초적인 법 교육과 국제결혼 희망자를 위한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을 시행하여 부부·가족 간의 이해와 소통을 돕기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배려 등이 필요한데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그런 소중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알려주고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사무소의 또 다른 자랑은 이민통합지원센터 바로 옆에 있는 '결혼이민자 사랑방'입니다. 사랑방에는 결혼이민자들이 기증한 각 나라의 공예품과 전통의상 등이 전시되어 있어 친근함과 정겨움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센터 직원들로부터 좋은 프로그램을 추천 받을 수도 있고, 모국 출신 이민자를 만나 향수를 달랠 수도 있습니다.

PM 13:30

**행복한 대전사무소를 만들어가는 '행정지원팀'**

4층으로 올라가면 소장실과 행정지원팀이 있습니다. 행정지원팀은 민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반 행정업무와 직원들의 행정지원을 하는 부서입니다. 작년에 대전출입국사무소가 법무부 조직문화개선활동 우수기관, 정책발표 및 청렴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그런 게 다 행정지원팀에서 보이지 않게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소개를 마치면서 일일특파원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서철진 관리과장님과 이병수 행정지원팀장님, 박인순 계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소장님의 향긋한 만남**

박상훈 소장 "출입국공무원인 나도 외국에 가면 긴장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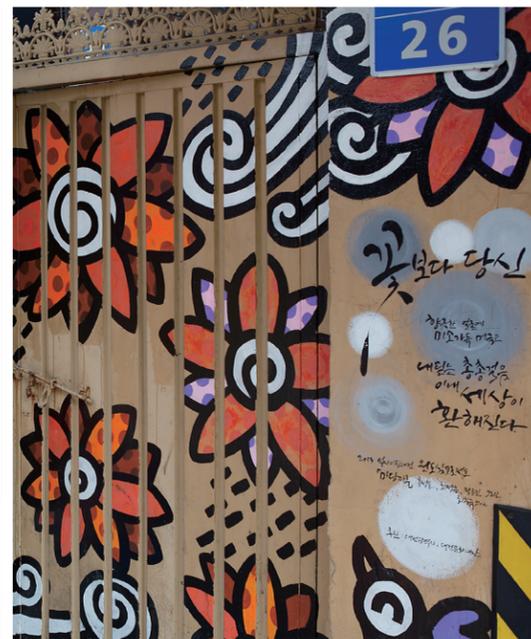
이흥매 씨 "친정처럼 포근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상훈 소장님께서 차 한 잔 대접하겠다고 소장실로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인 나도 외국에 가서 그 나라 출입국관리공무원 앞에 서면 긴장을 하는데 한국에 온 일반인 입국자들의 심정은 어떨까?"면서 직원들에게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 열린 마음으로 민원인들을 대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줄 것을 늘 당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후덕한 소장님과 친절함 직원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마치 친정처럼 포근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 Mesmerized by the beauty and aroma of Daejeon! DAEJEON BEST 4

1959년, 목포행 완행열차가 대전역을 출발하기에 앞서 기적소리를 울리자 플랫폼에 서있던 연인이 아쉬운 이별을 한다. 먼발치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레코드 회사 직원 최치수 씨는 역 근처 여관에 들어가 시를 쓴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열차 대전발 0시 50분...'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던 노래 '대전블루스'는 그렇게 탄생했고, 반세기가 지나도록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대전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보물이 되었다.



### 1 Roots of Spirits and Ideologies of Daejeon, Uam Historical park & Dongchundang

Daejeon is often described as the strategic transportation point where the Gyeongbu Rail Line and the Honam Rail Line cross, cutting-edge science city leading the advancement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of Korea. People of Chungcheong Provinces with the generalized dispositions of not hurrying up and speaking slowly in all of their daily affairs were traditionally referred to as 'noble-like gentlemen', perhaps because such sentiments are deeply rooted in their lifestyle. Uam Song, Si Yeol (1607~1689) who was a prominent figure in the neo-Confucianism of the Joseon Dynasty, and occupied government positions including the first vice-premier and the second vice-premier, could be referred to as one of the greatest persons Daejeon gave birth to and the spiritual anchor of Daejeon. Uam, after having resigned from his official post, returned to his hometown to train competent men. The Daejeon City government, in commemoration of his will and achievements, restored total of 16 ancient structures including lecture hall in the general regions of Namganjeongsa and designated the area as a Historical Landmark Park in 1998, which has now become the cradle of spirituality and ideology of Daejeon. Visitors can view the Namganjeongsa where Uam pursued academic researches and the Gigukjeong with outstanding architectural beauty in the Uam Historical Landmark Park, presenting wonderfully grand scenery with fully blossomed cherry blossoms under warm sunlight. Visitors will find 'Dongchundang' where Song, Jung Gil (1606~1672), who belongs to the same family tree of Uam Song, Si Yeol and occupied high government posts during the similar period, spent his later years of life. Dongchundang, literally meaning 'always like spring', is a structure with the representative architectural style of achieving harmony with nature in the latter part of Joseon Dynasty that enables visitors to have a glimpse of the grace and wisdom of a Confucian scholar who led a poverty stricken yet honorable life.



## 2 Harmony between the Nature and Arts, Hanbat Arboretum & Museums

If you love to stroll along flower lined paths in your tour of Daejeon, a visit to Hanbat Arboretum should not be missed. Unlike other arboretums, it is convenient to visit since it is situated in the urban center. Visitors can take rest at leisurely pace at the Hanbat Arboretum composed of about 30 themes including wild flower garden, ecology forest and tropical botanical garden while enjoying the aroma of extensive range of flowers throughout the year. Lee Ungno Museum exhibits the works of Goam Lee Ungno, a globally renowned artist who grafted oriental drawing onto abstract painting. Lee Ungno Museum, with outstanding harmony between a small and cozy building and the pine and bamboo trees in the surrounding with classical grace and dignity as though it were a Buddhist hermitage in the midst of a mountain, will lead the visitors to having close encounter with the life and soul of the artist, Lee Ungno, while listening to the curator's explanations on the artist's life and realm of the arts.



## 3 Venue for the Fatigued Body and Mind, Jangtae Mt Natural Recreational Forest

The Jangtae Mt. Natural Recreational Forest, one of the representative tourist destinations of Daejeon, is situated at the southern end of Daejeon. The thick metasquare forest which visitors encounter as soon as they enter the region is the foremost feature of the Forest that draws out repeated exclamations of the visitors. Visitors can choose to climb the mountain along the mountain climbing routes or walk at leisurely pace along the promenade. Regardless of what the visitors do in this tranquil forest that is completely cut off from the outside world, they can feel their tired body and mind healing by phytoncide discharged by the thick forest. Visitors can have special experiences at the Jangtae Mt. Natural Recreational Forest including the adventure of trying out the skyway hung at the height of 27m and passing through the metasquare trees having grown to the heights of more than 10-story buildings. Although slight fear may be experienced due to the swaying of the skyway when there is wind or people walking, taking photographs and experiencing of the romance of the exotic world while walking along the skyway is a unique joy that can only be experienced in the Jangtae Mt. Natural Recreational Forest. Immersing oneself into one's imagination while listening to the chorus of the forest trembling in the wind is another pleasure one can experience. Regardless of what the imagination one may have, it is the most appropriate imagination in the Forest and one becomes the leading character in it.

## 4 Living Cradle of Cultures, Euneungjeongi & Daeheung-dong Street

The Jungang-ro (central street) to the former provincial hall of Chungcheongnam Province, was the central axis of the culture, art, economy and public administration of Daejeon. Jungang Market, the largest market in the central region is located between the Daejeon Station and the





Daejeoncheon with fully blossomed cherry blossom along its banks, and one can reach the Euneungjeongi Street of Culture by crossing the Daejeoncheon through the Mokcheok Bridge with outstanding formative beauty.

The Euneungjeongi Street of Culture is covered by splendid lights in the evenings thanks to the extensive range of video shows including the music videos of idol singers played 4 times every nights on the 'Daejeon Skyroad'. Once the show starts, the audiences simply cannot lower their sights. The screen displays splendid fireworks with variegated colored lightings that changes into an aquarium with wide range of colorful corals and fishes. It also displays air show along with booming roars of the speeding jets as well as the mysterious scenes of the universe right above the street.

Seongsimdang, the most famous bakery for its 'fried streusel' and 'Chinese chives bread' in Daejeon as well as the 'Daejeon Creation Center', you will enter the Daeheung-dong Street of Culture. The Daeheung-dong Street of Culture draws the attention of passers-by with a collection of charming murals. This place houses diverse elements including Ilsimpilbang producing calligraphic brushes for ages, Sosanwon renowned for the handcrafted tea, Sanho Inn, which is a guesthouse and exhibition hall for young artists, that add romance and energy to the urban scenery of Daejeon.

### "Great place to live"

"I visited Korea before and I find Korea a wonderful place to live. In particular, it is a great place to live for women." Imankulora Oisulur who came from Uzbekistan following marriage with a Korean currently resides in Buyeo. She is visiting Daejeon today. "I feel that Daejeon is a beautiful city overflowing with affection and blissful spirit, and I want to visit Daejeon more often." Imankulora Oisulur (Uzbekistan)



### You can see as you know!

대전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 대전관광포털 [www.daejeon.go.kr/dj2009/tour/index.action](http://www.daejeon.go.kr/dj2009/tour/index.action)
- 대전종합관광안내센터 ☎ 042-861-1330
- 우암사적공원 동구 충정로 53, ☎ 042-673-9286
- 동춘당 대덕구 동춘당로 80, ☎ 042-608-6574
- 한밭수목원 서구 둔산대로 169, ☎ 042-472-4972~4, [www.daejeon.go.kr/treegarden](http://www.daejeon.go.kr/treegarden)
- 이용노미술관 서구 둔산대로 157, ☎042-611-9821, [ungnolee.daejeon.go.kr](http://ungnolee.daejeon.go.kr)
- 대전시립미술관 서구 둔산대로 155, ☎042-602-3204, [dmma.daejeon.go.kr](http://dmma.daejeon.go.kr)
- 엑스포과학공원 유성구 대덕대로 480, ☎042-869-5114, [www.expopark.co.kr](http://www.expopark.co.kr)
- 장태산자연휴양림 서구 장안로 461, ☎042-270-7883, [www.jangtaesan.or.kr](http://www.jangtaesan.or.kr)
- 성심당 중구 대종로480번길 15, ☎042-256-4114, [www.sungsimdang.co.kr](http://www.sungsimdang.co.kr)
- 대전근현대사전시관(구 충남도청사) 중구 중앙로 101, ☎042-270-4535

### Daejeon Food Course Guide

#### 'FRIED STREUSEL & CHINESE CHIVES BREAD'



: Seongsimdang, which produces approximately 4,000-5,000 of 'fried streusels' a day on average, is one of the

most popular spots in Daejeon. Crunchiness of the fried outer shell and the sweetness of the whole grain adzuki bean paste filling offer heightened palatal pleasure. Besides "fried streusel", 'Chinese chives bun' through exquisite harmony between the filling and the shell with less sweetness.

#### 'KALGUKSU (HAND-KNEADED NOODLE)' WITH EXTENSIVE SELECTIONS



: It is obvious that kalguksu restaurants, using flour as the main ingredient which had become the

largest trading center of flour in Korea since the Korean War. There are so many kalguksu restaurants in Daejeon that a separate "kalguksu map" had to be produced for insertion in the tourist map of Daejeon. Daejeon City even held Kalguksu Festival last year from the ordinary to special kalguksu with unique and creative supplementary ingredients.

#### 'DURUCHIGI' RENOWNED FOR ITS HIGHLY STIMULATING TASTE



: Duruchigi is a dish cooked in a short period of time with whatever available ingredients at the time to serve

the guests who visited unexpectedly. Pork, bean curd, squid and small octopus are frequently used as the main ingredients. As there is not sufficient time for the main ingredients to be sufficiently marinated, strong seasonings are used to supplement inadequate marinating.

# 봄바람 타고 온 친절한 당신~

민원인의 만족 100%를 위해 오늘도 밝은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로 민원인들을 마주하고 있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들. 민원인들과 쌓은 수많은 인연의 수만금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칭찬의 소리도 늘어난다. 오늘은 또 어떤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문을 두드렸을까?

## 즐기면서 신바람 나게 일해요

민원인들이 많다 보니 인터넷으로 방문 예약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제 시간에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먼저 다가가 상황을 설명해드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 업무가 쏟아지면 피곤해지기 십상이지만 많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저의 웃는 얼굴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상을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일합니다.

이태화 반장(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 민원인들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됩니다

얼마 전 저희 사무소를 찾은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서류가 있었는데 모든 것이 서툴고 낯설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며 초조해 하셨죠. 일단 최선을 다해 처리해드리겠다는 말로 그 분을 안심시켜 드리고, 마감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분 곁에서 서류 작성과 업무를 도와 민원을 처리해 드렸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평소와 같은 친절함으로 민원인들을 마주합니다.

기보승 심사관(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 행복한 입국심사대 만들어요

공항의 출입국심사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 이른 아침시간에도 출입국심사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행 후 피곤한 몸으로 심사를 받는 분들도 제가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 마주 웃어주시면서 분위기가 풀리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이 출입국심사대에 들어오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 반갑게 출입국 심사를 도와드립니다. 저로 인해 딱딱하기만 한 입국심사가 조금이라도 편안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영희 반장(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 내가 바로 인천의 웃음전도사!

민원 카운터에서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의 등록 체류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실 새 없이 밀려드는 업무로 정신 없이 바쁜 곳이지만, 최대한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거나 불안해 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그들을 대하는 것 또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서작성에 서툰 분께 다가가 문서작성을 돕기도 하고 행어나 실수를 할까 불안해 하시는 분들에게는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농담으로 얼어붙은 분위기를 풀어주며 웃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를 보며 밝은 미소로 함께 웃어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힘이 납니다.

김영운 심사관(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 한발 다가선 귀환동포 정책을 기다리며

1980년대까지 한국에서 '이민'이라는 용어는 내국인이 국외로 나가는 것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국제이주가 빈번해지면서 국외로 이주하였던 동포가 다시 고국으로 귀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에 따라 귀환동포 정책의 중요성과 함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금, 귀환동포 정책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다.

## 귀환동포 정책의 중요성이 커진다

한국에서 이민문제가 과거에는 주로 '나가는 이민'에 초점을 두었다가 '들어오는 이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귀환동포들이다. 과거 국외로 이주하여 현지 국적을 취득하고 생활하던 재외동포들이 국내에서 장기체류 하거나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귀환동포의 행렬은 한국이 과거 이민유출국에서 오늘날 이민유입국이 된 상황을 대변한다.

귀환동포와 관련하여 한국은 1997년 10월 제정된 「재외동포재단법」과 1999년 9월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라 귀환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국내에서 내국인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게다가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동포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국적회복제도」를 통해 일반 외국인보다 쉽고 간편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허용한다. 현행 국적법은 2011년 1월부터 대한민국 국적 회복자에게 기존의 외국국적 포기를 강제하지 않고 사실상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장치에서 한국정부가 귀환동포를 일반외국인과 구분하고 보다 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한국의 귀환동포 정책은 충분히 정교하지 못하여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 국민 동의와 지지 속에 추진되는 외국의 귀환동포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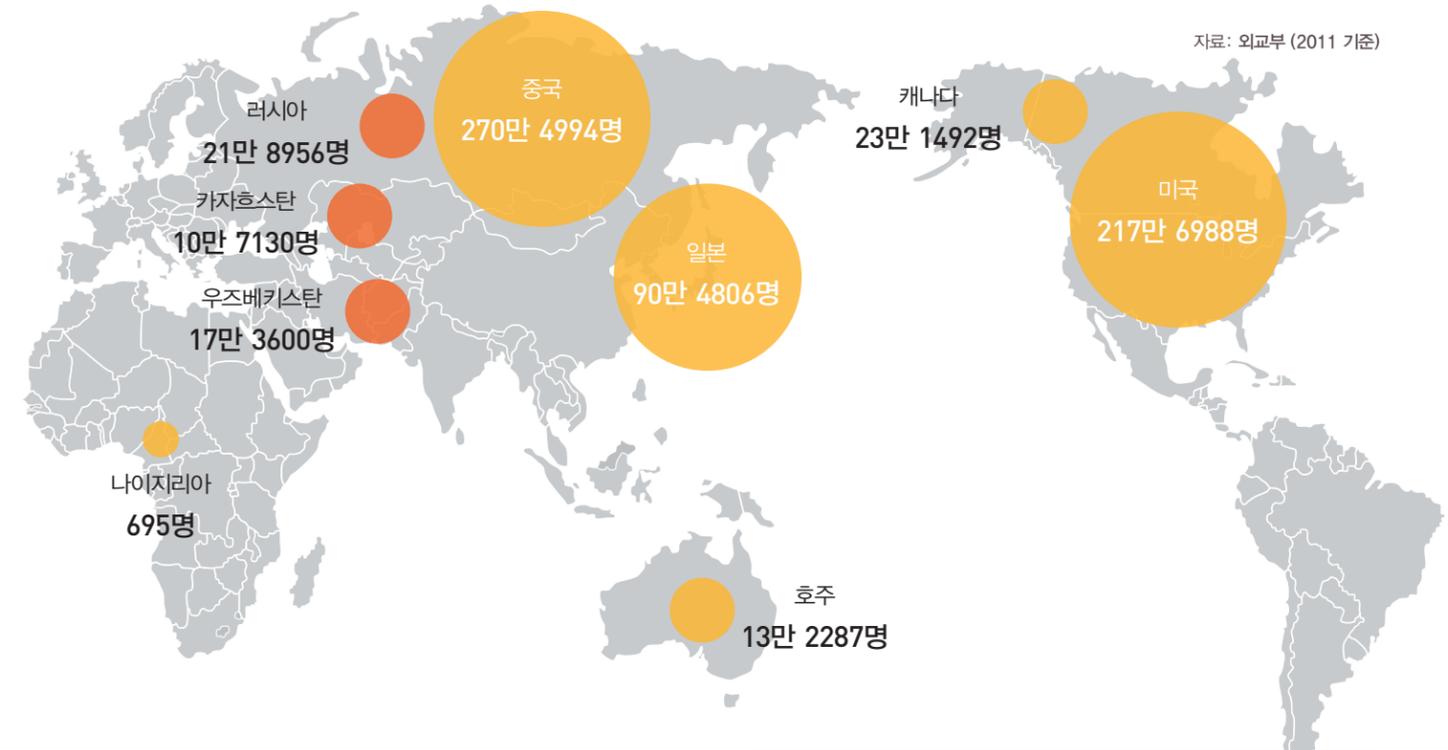
국제이주가 빈번해지면서 국외로 이주하였던 동포가 다시 고국으로 귀국하는 해외 사례도 늘었다. 주요 선진국들은 대체로 귀환동포를 적극 수용한다. 이때 나라별 귀환동포의 수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동포에 대한 국적부여 제도이다.

독일은 「기본법」 제116조에서 외국국적동포의 귀환과 국적회복의 권리를 명시하여 패전 후 상실한 해외 영토에 거주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국적으로 생활해 온 독일민족의 귀환의 길을 열어두었고, 실제로 통일 이후 구 공산권에 거주하던 외국국적의 독일민족들이 대거 독일로 귀환하였다. 독일정부는 현재도 독일민족의 귀환을 환영하고, 귀환동포에 대한 포용적 태도가 외국의 우수인재 유치로 이어진다는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2009년부터 외교부와 별도로 장관급의 재외동포 문제를 전담하는 장관급 부처를 설치했고, '예루살렘 및 디아스포라부'라고 명명된 해당 부처는 국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국적을 부여하면서 국외 유대인의 이스라엘 귀환을 독려하고 있다. 그 밖에도 대다수의 서유럽 국가들은 유럽국적협약(European Convention on Nationality)에 가입하고, 유럽국적협약 제 9조 규정에 따라 과거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상주 거소를 두었던 국민의 국적회복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외국의 귀환동포 정책이 국가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재외동포를 국익에 도움을 주는 인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적극 수용하려는 공통점이 관찰된다. 그리고 동포 포용은 특정 국가 출신을 차별하지 않는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외동포 포용에 대해 국민의 대다수는 동의하고 지지를 보낸다.

## 고려인을 배려하는 보완된 귀환동포 정책 필요

한국의 귀환동포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일명 '고려인'이라 불리는 CIS출신 동포에 대한 배려이다. 고려인 또한 중국동포와 마찬가지로 H-2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여 국내에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의 85.2%(2014년 2월 말 기준)를 차지할 만큼 많은 수의 중국출신 동포들이 국내에서 든든한 사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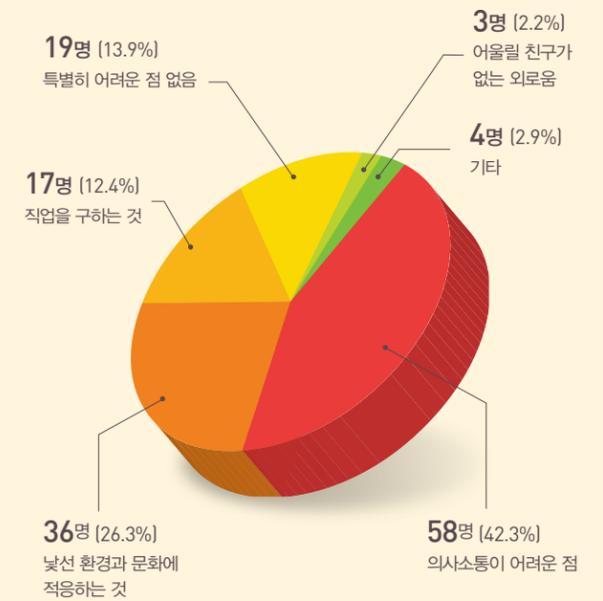


관계망을 형성하고 국내생활에 비교적 쉽게 적응하는 데 반해, 고려인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IOM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한-CIS 관계증진을 위한 CIS출신 동포 활용방안: 국내체류 경험 고려인을 중심으로'를 보면, 국내 거주 고려인들은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보다도 한국어 구사력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인을 대상으로 입국 당시 한국어 수준을 조사한 결과,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는 수준이나 쉬운 대화를 하는 수준이 37.3%에 그치고, 조금 알아듣거나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수준이 6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당수의 고려인들이 국내에서 직장을 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고려인들은 한국정부와 한국인들이 자신들을 동포로 포용하지 않고 선진국 동포와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불만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고려인 지원기관 관계자들은 다문화가족에게는 다양한 복지지원을 하는 한국정부가 동포인 고려인 복지에는 무관심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고려인과 고려인 지원기관 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객관적인 견해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재외동포를 포용할 수 있는 세련된 한국 귀환동포 정책 발전을 위해 이제는 이들이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

IOM이민정책연구원 (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은 국제이주기구(IOM)와 대한민국 정부 간 국제협정에 의해 2009년 12월에 설립된 비영리 연구·교육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정부, 나아가 아시아 지역 및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와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 다문화 정책에 특화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내·외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고려인이 입국 초기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점



출처  
〈한-CIS 관계증진을 위한 CIS출신 동포 활용 방안: 국내체류 경험 고려인을 중심으로〉



## 인천공항사무소, 투자이민센터 업무 개시



지난 2월 28일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는 투자이민센터를 설치하여 투자이민 관련 업무를 개시하였다. 공익사업투자이민 및 부동산투자이민 희망자를 대상으로 투자이민제도 홍보, 투자이민 상담·안내, 투자자의 출입국, 투자진행 및 체류허가 지원 등 편의제공, 투자이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 등을 지원한다. 공익사업투자이민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투자유치 실적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4월 기준, 공익사업투자이민 실적은 5건(21억 원 유치)이다.

## The Incheon Airport Immigration Office opens the Immigration Investment Center.

On February 28th, 2014, the Incheon Airport Immigration Office opened the Immigration Investment Center to begin its immigration investment works. The center offers a wide range of support to eligible applicants for the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Public Business and Real Estate, such as promoting immigrant investor schemes, immigration investment consulting/instruction services, assisting investors with arrivals/departures, investment process, permission to stay, interpretation and others. The center is expected to boost foreign investment capitals in Korea. As of April, 2014, there have been 5 investment cases made (total investment amount; 2100 million KRW) through the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Public Business.

## 개정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 4월 1일부터 전면 적용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이 4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속성 결혼 방지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구사가능 여부 심사, 초청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거공간 확보여부 심사, 초청제한 기간을 5년 내 1회로 제한(기존 5년 내 2회까지 허용), 국적 취득 후 3년 이내 다른 외국인인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것을 제한(단, 혼인피해자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 등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어 요건은 3월 31일까지 국내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에게 한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하였으며, 위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라도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요건의 적용을 면제하였다.

## Implementing the revised evaluation criteria for a marriage migrant visa (F-6) application starting April 1st, 2014

The evaluation criteria for a marriage migrant visa (F-6) application, devis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order to promote sound international marriages and support the stable settlement of marriage migrants have been implemented since April 1st, 2014.. Under the revised evaluation criteria, a visa applicant should have a basic level of Korean speaking capabilities, which is for preventing the abuse of international marriages and supporting stable settlement; a sponsor must meet the income requirement standard and have a residential space; the number of sponsorships is limited to once every five years (allowing two sponsorships every five years under the previous evaluation criterion); and sponsorship of another foreigner is not permitted if it has not been three years since the sponsor acquired Korean nationality (but, if the sponsor acquired the nationality through falsified marriage, the time lapse criterion is not applicable). However, in order to minimize any disadvantages that a visa applicant may have due to the revised evaluation criteria, the applicant that has registered his/her marriage in Korea by March 31, 2014 is exempt from the requirement for Korean language capability for the year until December 31, 2014, and in the case that a visa applican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mentioned above but has any humanitarian reasons, such as raising a child born between the applicant and his/her Korean spouse), then some of the requirements are exempt.

##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 확대 시행

법무부는 지난 4월 6일부터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의 대상 지역을 기존의 인천, 김해 국제공항에서 양양, 청주, 무안 국제공항으로 확대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중국에서 양양, 청주, 무안 공항을 거쳐 제주도로 가는 경우, 인근 지역과 수도권에서 비자 없이 72시간 동안 머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비자 없이도 강원, 충청, 호남 지역 중 1곳 및 수도권과 제주도를 패키지상품으로 연계시켜 총 15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관광할 수 있게 되었다.

## Further Implementation of "No-Visa Entry for Foreigners in Transit" Program

The Ministry of Justice has expanded its No-visa Entry for Foreigners in Transit Program from April, 6th, adding Yangyang, Cheongju, Muan International Airports to the existing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Gimhae International Airport. With this expanded implementation, if a passenger travels from China to Jeju Island through Yangyang, Cheongju, and Muan International Airports, he or she can now stay in the proximity of the area and in the proximity of Seoul (Seoul, Incheon, Gyeonggi Province) for 72 hours. Therefore, Chinese group tourists can now stay in Korea, without a visa, for a total of 15 days by tour packages, combining one area among Gangwon, Chungcheong, Jeolla Provinces and the proximity of Seoul (Seoul, Incheon, Gyeonggi Province) with Jeju Island.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난민신청자 시범입주 실시



지난 2월 28일부터 인천 영종도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아프리카 출신 1명과 중앙아시아 출신 일가족 5명 등 난민신청자 6명이 시범입주 하였다. 입주자들은 센터 시설에 매우 만족하였고 박해의 위협을 피해 우리나라에 입국한지 얼마되지 않아 살길이 막막했는데 안정적으로 머물 곳을 마련해 준 우리 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센터는 초기 난민신청자에 대한 주거와 생계 지원 시설로 입주자에게는 국적, 종교 등을 고려한 식사를 제공하고 한국어, 법질서 등

국내 적응 교육과 박해의 공포에 대한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심리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난민신청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KIR Center opens door for refugee applicants as part of is pilot program

The KIR (Korean Immigration Reception) Center, located in Yeonjong Island, Incheon, opened its door to refugee status applicants (1 from Africa, 5 from Central Asia/family) on February 28, starting its pilot implementation of reception services for asylum seekers to Korea. The applicants, now residing in the center, are highly satisfied with the brand new center's facilities and expressed deep appreciation to the government's efforts to provide them with a stable place to live during their times of need. The KIR center was built to help asylum seekers in their initial stage of application procedures by offering them various services, including housing, basic livelihood necessities, meals in consideration of their cultural and religious background, society integration training courses such as language, basic laws and regulations classes, as well as counseling sessions for those who have been experiencing psychological trauma due to fear of persecution. Refugee status applicants wishing to stay in the KIR center can submit an application and acquire further information at the immigration office of their current residence.

## 외국인 관광객 대상 우대카드 발급

법무부는 '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 제도를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중국과 동남아 등 구매력 높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며, 우대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의 발급 ▲출입국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또는 우대 심사대 이용 ▲관광지 통역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 Korea Priority Card for Foreign Tourist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implemented the "Korea Priority Card Program" from March.17th. Foreign tourists from China, Southeast Asia, etc. with high purchasing power are subject to the program and those who possess the Priority Card are provided with ▲The issuance of multiple visas with a validity of 5 years ▲Use of Smart Entry Service (SES) or Immigration Fast Lane ▲Interpretation service at tourist sites.

##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출입국 Q&A

출입국 Q&A에 질문을 보내주세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해드립니다. 혹은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문의 하시거나 하이코리아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내실 곳 : zee@theseven.co.kr

**Q** 제가 가진 방문취업비자(H-2)가 올해로 5년 만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하려면 비자 재발급을 위해 반드시 출국해야하는지, 출국하면 언제 재입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My H-2 Working Visit visa expired. Do I really need to leave Korea? If yes, when will I be able to return?

**A** 다른 체류자격으로 비자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반드시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출국해야 합니다. 완전출국일 기준 만60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 복수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 제조업, 농축어업, 육아도우미로 취업개시신고를 하고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사람은 완전출국 후 2개월 경과 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have not been given permission to switch your visa already, yes, you must leave Korea by the expiry date of your visa. However, those under age 60 are eligible to apply for new H-2-7 multiple entry Working Visit visas valid for 3 years after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ir complete departures. Furthermore, those working in the manufacturing, agriculture, fishery industries or as babysitters, who have declared the commencement of employment and worked for the same employer for at least one year are also eligible to apply for a visa after 2 months from the date of their complete departures.

**Q** 현재 방문취업비자(H-2)로 제조업에서 취업 중인 동포인데 재외동포(F-4)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동포비자로 변경되면 개인사업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I am overseas Korean currently working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on an H-2 Working Visit visa, and I would like to know if I can switch my status to F-4 Overseas Korean. If yes, will I be allowed to run my own business?

**A** 서울, 인천, 경기도의 일부(인구 20만 이상 시·군)를 제외한 지방소재 제조업에서 사업장 변경없이 2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나 가능하다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재외동포(F-4)자격으로 비자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나 벌금형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비자는 단순노무 분야 직종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며 개인사업이나 기타 영리활동이 가능합니다.

It depends. If you have worked at a local manufacturing plant outside Seoul, Incheon, and some areas of Kyonggi-do - any city or town having a population of 20,000 or above - for at least 2 years without changing the work place, or if you have obtained a national skill license (technician level or higher), you will be eligible to apply for F-4 Overseas Koreans status. On the other hand, if you have ever violated the Immigration Control Act or have been fined for a criminal offense before, your application will be automatically rejected even if you satisfy all the requirements mentioned above. Finally, if you do get to acquire F-4 Overseas Korean status, you will be allowed to run your own business or engage in profit-making activities as long as you don't work in the simple labor field.



# 앱북 다운 받고, 선물 받고!

재한외국인의 한국생활 도우미,  
〈共ZONE〉 앱북을 다운로드 받고,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재한외국인을 위해 발간하는 공감매거진 〈共ZONE〉을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주요 정책 정보와 함께 재한외국인의 한국생활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共ZONE〉 앱북 IOS용 버전은 앱스토어에서, Android용 버전은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샷을 보내주시는 독자분께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사진 보내실 곳 : zee@theseven.co.kr